

社說

경선모양 갖춘 외압과 반민주 행태 —민자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보고서

민주자유당이 총선패배의 책임추궁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대통령후보경선을 서두르게 되었는데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YS의 개인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소수계파와 리더로서 총선을 통해 계파소속의원의 다수가 낙선함으로써 경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신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조기 경선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자신의 영향권에 속한 지방에서 자신의 협력으로 당선된 다른 계파 출신 의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총선부위가 남아 있는 시점에서 경선후대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계산도 단단히 한몫을 했다.

이러한 계산에서, 치졸한 민자당의 대통령후보경선이 국민을 만족시키고 민자당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축제라 그대할 사람 있는 거야 없다. 사실상 대통령후보경선의 출발점 자체가 민자당의 대변인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보다는 당내사정, 개인사정을 기반으로 했으므로, 민자당이 국민을 외시한다는 것은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민자당의 자세는 이번 대통령후보경선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민자당의 대통령후보추진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한 걸림을 뚫었다. 이른바 JC라는 대통령후보추진보자는, 비록 추상적으로 <의심>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우리

나라의 행정부(권력기관을 포함해서)가 정치에 깊숙히 관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실했한 것이다. 자신도 옛날에 "여자를 낳자로 만드는 것" O의에는 무소불유이라는 기관에서 장기간 봉직을 했고 그 삼합하던 5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갈바하기가 어려웠으면 외압이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경선거부하려나. 여론인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행동을 했을 것인거야. 이 사람의 경선과 정에서의 행동은 행정권의 민주화 외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를 노출시켰고, 민주화라는 그 용안의 구호가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남긴 없이 고백한 것이다.

아마도 이번의 민자당대통령후보경선을 통해서 국민이 간접적으로나마 거를 수 있었던 점과는, 비록 국민 누구인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JC의 다급한 비명을 통해 이 나라 최고권력의 가리푼진 이면을 폭탄 한 것이다.

사실상 민자당대통령후보경선에 대해 공판 중 이상의 관심을 보인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유리본지 오랜 정당, 벼를 갖는 아들을 권연선사 새로 태어나더라도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것이 반한 정당의 대통령후보경선은 코미디에 대한 흥미 이상일 수 없는 것은. 다만 민자당대통령후보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비록 국민적 지지는 이미 떠났더라도,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하던 가계를 되살려내어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와 우리 사회의 대변 역할을 위한 작은 줄 하나라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와 조국의 외침에 일어서는 청년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을 앞두고

오는 29일 부터 3월간 서울 한양대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자발한 조직 전국대학생 대표자 회의 출범식이 개최된다.

전대협은 지난 88년 전국대학생의 '전국 반외세 압축제 극복운동'을 주도하고 호헌헌법과 대대적인 학생운동 단합을 촉구했고 호헌헌법과 독재타도 및 기타학생 전국대회고 지역적인 대규모 결기 행동으로 승화된 결과물, 즉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획책함으로써 한국변혁운동사에 빛나는 한 획을 그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청년학생의 강조된 연대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8월1일 고려대에서 제1회 전국대학생 지역 대표자 연석회의가 개최된 후 다시 수차례의 연석회의를 통해 드디어 8월19일 조국강토 곳곳에 애국의 함성을 칠하게 울려 퍼뜨리며 총탄대로 걸침하 3월 5일여 학우들은 4천만 국민과 7천만 겨레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안에 자랑스런 조직 전대협의 건설을 선포하는 '전국대학생 대표자 발족식'을 거행하게 된다. 그후 88년 6.10. 8.15 남북청년학생 회담 성사 투쟁, 88년 제13차 평양학생회 참가 투쟁, 이월구, 이라한 열사 살인진상 규명 투쟁, 90년 '구국의 아홉' 3당 합당 반대투쟁, 91년 5·6월 탄압을 받으면서도 더욱더 강고한 조직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88년대 후반기와 90년대 초를 거치면서 전대협은 말 그대로 '불패의 신화'를 창조해 온 것이다.

이번 92년 구국의 강령대로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은 다음의 의의를 가져야 할것이다.

무엇보다도, 백만 청년학생이 92년 민주정부 수립투쟁의 승리를 힘차게 결의하는 장이 되어

야 할 것이다. 한우 민주당의 재집권을 막아내고 민주정부수립을 기필코 이루기 위한 청년학생의 헌신적인 투쟁과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할것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백만청년학생의 삶과 책임지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총학생회연합건설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전대협은 정치투쟁 뿐만아니라 백만학우의 일상적 요구까지 수렴하여 실행하는 삶과 사랑과 투쟁을 함께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백만의 대표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전대협은 일찍이 조직의 변화와 필요로 하고 있다. 모든조직은 투쟁수에서 건설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논의와 결의가 담보되어야 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전총련건설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를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

앞으로 남은 5월과 그리고 6월의 정치일정을 앞두고 5월투쟁의 소중한 결실과 92년 민주정부 수립투쟁의 방향타를 결정하고 우리 역사속에서 증명되고 지난 3.25총선에서 고충으로 얻은 '제 민주세력'과 4천만 국민이 민주회의의 연대에 단결하고 하나로써 부강단면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중한 진리를 되새기며 단면한 정치적 과제를 부강부족 없는 대통령선거를 치루는데 꼭 필요한 '자발적지단결장 선거실시'와 '국가보안법' 제1인 악법철폐투쟁을 통해 4천만 국민의 민주정부수립의 외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역사와 조국의 부름 앞에 청년은 언제나 한 치가 일어섰음을 잊지말자.

"여리풍 맞인가, 철부지인 파문인가, 아니면 생파인가, 여리풍이라면 생파인 나이가 어림없다. 철부지라면 파문이라는 지적과 지상에 너무나 잘못지 않는다. 그 도지도 아닌 생파라면 혼이 나야 비방라 다."

O는 지난 14일부터 풍아래, 전년대, 건국대 등이 '인공기'가 개발된대 대한 지난 12월자 한국일보 출판 지평선(해부)에 실렸다.

이외에도 각 일간지 들은 '화내에 인공기가 발명인가' '사태화오의 인공기' '주식과 또 시작인가' 등의 제목으로 이를 신랄한 화를 통해 대하여 '여리풍' '철부지' '생파'라한 단어들을 쓴 때도 한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줬다.

그러나 그 지면에는 인공기 만이 걸린 것이 아니라 배극기와 남북대결식 보도대도 언급, 찬양하느냐에 그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었고제만 해도 남북간의 총리를 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통일을 위해 서로

를 내걸어어린 했던 이유에 대한 이통가 적대관계가 아닌 화해·협력의 동반자로서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남북 합의서'까지 채택된 상태 하에서 '인공기'에 대한 언론의 이러한 '일베르기' 반응은 실로 시대에 역행하는 저사라 할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언론권 내부에서조차 어떤 인공기 파문에 대하여 '정부의 탄압과 그림을 자초하는 폐착'이라는



인공기 사건, 언론의 남북대결식 보도대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대로 반국가단체를 모두, 찬양하느냐에 그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었고제만 해도 남북간의 총리를 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통일을 위해 서로

논의가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언론의 사명이 사회의정의 무조건적 수현이 아닌 그것의 올바른 선도와 함께 언론의 보도 태도는 지금과 같이 일방적인 보도가 아니라 끊임 없는 이데올로기 공세로 아

까지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소위 레드 콤플렉스를 타파하고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서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동시에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겨내는데 노력했어야 했다.

우리는 현재 냉전체제가 아닌 신 대타트 시대에 살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 우리의 언론들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아직도 개개국은 과거의 대결구도만을 생각하며 이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며 하고있다.

남·북간의 통일협상이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전체 민족의 정서가 합하여 지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인공기 파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언론과 입장은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라 할아 여지는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식의 논리보다는, 분단시대, 남북대결시대의 전체 체결이라는 통일시대의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 매진하여야 할것이다.

〈임종준필〉

개혁 상실된 지배층 교체

— 필리핀 선거에서 변혁의 가능성과 실상



현재 진행중인 필리핀의 선거는 과거 2월 민중혁명과 관련된 이 세상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8년 2월 민중혁명을 통해 마르코스를 무너뜨림으로써 한때 민주화와 진전을 가져온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으나, 필리핀 상황은 마르코스와 그의

구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정한 과두제 정치체제로 불러도 크게 틀린 지적은 아닐 것이다.

필리핀의 전통적인 지배계급들은 지방의 지주들인데 이들은 자체적인 사정을 보유하고 있는등 지방에서 반분권적인 권력을 점거왔던 정치권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당히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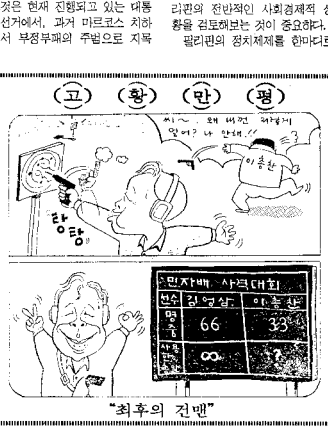
파라서 장구유사출신들은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대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대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과거 주권대체제잔업을 통해서 성장했던 민주자본가들은 외국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수출지향적인 출신자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와 대립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이들 지배세력에 도전해온 민중들은 농촌부락에서는 산신민권, 도시부락에서는 공산당 및 정부제 노동조합과 가톨릭의 진보세력들로 조직화되어있었다. 과거 마르코스를 쫓아간 2월혁명은 사실상 마르코스의 정국구두제의 후퇴를 가져왔다.

필리핀의 정치체제를 한바탕

전통적 지배세력 사회·경제의 중심차지 좌파, 선거거부로 주도권 상실·세력감소



리안의 진보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리핀의 정치체제를 한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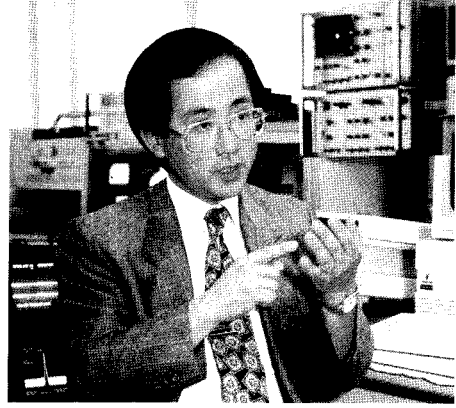
공산당 및 좌파세력들은 선거거부투쟁을 전개했는데, 마르코스와 이에 서 기득권을 침해당한 중간계급 및 중소자본가들과 전통적인 지주계급출신들이나, 그러나 이들 기득권을 무너뜨린 것이 마르코스정권이다. 마르코스는 개인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지배계급들을 만들었다. 마르코스의 친인척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들은 마르코스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산업에서 독점적인 특권을 행사하여 국가재정과 국가투자산업, 그리고 외국과 관련된 각종 수출산업에 통틀 대재벌로 성장하였다. 또 다른 부분은 군부내의 마르코스 친위집단들이다.

이들은 마르코스와 같은 지방 출신들로 구성되어 군부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잡이 관련된 베르 전 참모총장과 같은 이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르코스의 친인척들의 특장은 다른 지배세력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예컨대 마르코스의 군부 인맥은 ROTC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 선거이후라고 할 수 있다. 부통령선거 시비가 재충되는 외중에서 대중적 시위로 연결된 대중들의 투쟁이 나 아니면 기성정치인들간의 정경이 발생할 것이 분명할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은 다시 한층더욱 커져나갈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의 지배세력들은 쿠데타를 포함한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필리핀이 단면하고 있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좌파는 현실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필리핀이 가까운 장래에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로 보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김 동 택
(서경대 강사·정치학)



●홍일진
(삼성중학) "기술 진보산업 연구소 연구실 상황"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문성준 군이 삼성중학기술원의 용영진 실장을 찾아가 우리 과학기술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동통신 기술은 지금 21세기와 교신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대를 바라보며 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 해나가고 있다. 마르코스의 중요한 강령강에 서있다. 기술 수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기가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기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꿈이던 노력과는 다른 더 적극적인 미래지향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금까지 2000년대를 준비하지 않았고는 막상 그때가 닥쳐왔을 때 기술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열 중요한 기술 분야에 하나로 이동통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크게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현재 쓰이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늘어날 통화량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디지털 방식의 이동통신으로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렇고 그 목표가 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하면 어려움이 더 클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기술을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동통신의 경우 이 기술의 비전은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과 통신할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것이요, 그런데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기술로 응용할 줄 아는 인재가 꼭 필요합니다.

"이동통신 기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자기술 전체가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준형 반도체인 에이치(ASIC)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문형 반도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에이치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틀에

업에이지 않는 자유롭고 강한 응용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큰 용기와 넓은 바다로 나아라 하듯 큰 목표를 향해 나 자신을 먼저 보고 싶은 공학도로서의 꿈이 꿈을 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꿈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듯했다.

삼성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젊은이와 만나고 있습니다.



●김동택
(삼성중학) 전자공학자 4학년

